

第61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5月28日(水) 午前11時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倫理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李承魯議員外9人 發議)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倫理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文京周議員外11人 發議) 2面

(11時04分 開議)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李東湜 사무국장 이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선임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승로의원의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감사위원선임의건과 박경석의원의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네, 이동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李承魯議員外9人 發議)

(11時06分)

○議長 趙基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

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감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고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委員長 高允根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議長 趙基燦 네. 고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안건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萬議員 의석에서—선임방법 애기 하시는 겁니까?)

네. 선임 방법입니다. 네, 정창만위원장님,

(○鄭昌萬議員 의석에서—무기명투표로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정창만 지역개발위원장님,

(「구두호천했으면 합니다」하는 이 있음)

선임방법을 말합니다. 선임방법.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와서 동의까지 나왔습니다. 제청있으므로 동의를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민석의원님,

(○金珉奭議員 의석에서—시간이 저저하니까 본인 생각에는 기립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민석의원님으로부터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있으십니까? 제청있으니까?

(○安敦洙議員 의석에서—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김민석의원님, 안이 지금 기립으로 하자는 안이

(○金珉奭議員 의석에서—구두호천을 해가지고 기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없으니까 김민석의원님, 양해 해 주시죠?

(○金珉奭議員 의석에서—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창만의원님으로부터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결산 감사위원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를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선임 방법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3分 停會)

(11時25分 續開)

○議長 趙基燦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감사위원선출을 위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41인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연경의원님, 최동환의원님, 류성열의원님 이상 3분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합니다. 이상 3분의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係長 표석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석에서 보실 때 앞에 있는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서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성명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時30分 投票開始)

(의사계장:의원호명)

○議長 趙基燦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4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4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1표 중 김광식의원 18표, 최동환의원 21표, 박경석의원 1표 따라서 최동환의원이 1997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윤리특위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停會)

(11時58分 續開)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倫理特別委員會 委員選任의件(文京周議員外11人 發議)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4인씩을 추천받아 운영위원회 협의의를 거쳐 오늘 성북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명단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윤리특별회 위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섭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李龍燮議員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안드리고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리위

원회 위원은 우리 구 의회 상정으로 아마 발족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중 제척사유가 있으신 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상 거론은 하지않겠습니다만, 한 두 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제척사유가 있다 하면은 자진 사퇴하여 성북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의원윤리강령에 부합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자주, 저도 여러분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간에 자주 여러가지 성격상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만, 요 며칠전에도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늦게 와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가스트별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보고, 또 저 나름대로는 가스트별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께서 얼마전에 우리 임시회가 개의되는 날 저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됐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밖에 잘 안나가는데 이번에 가스트별위원회에서 3일간 우리가 조사를 19군데 다니면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일이 없다고 하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왜 한 일이 없느냐고 하니까 싸움박질하고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위원회를 맡을 수 있느냐,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얼굴이 새까맣게 났습니다. 밖에 한번도 안나왔었는데, 3일간, 아침 10시부터 그 높은 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비파작업을 하고 다니는데도 한 것이 없다고 공연히 트집을 잡고 의원들간에 이간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노파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진사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섭의원님께서 윤리위원회 제척사

유가 있는 분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용섭의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제청하실 분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찬반, 운영위원회 안을 지지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고, 운영위원회 안에 약간 이의가 있어 문제제기를 했는데, 두 안이 지금 성립이 되었습니다. 제청까지 있어서, 그래서 두 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야할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처리할까요?

(「의장」하는 이 있음)

안돈수 의원님 나오십시오.

○安敦洙議員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이 부족한 관계로 이것을 무기명 투표나 기립이나 이르기 전에 어떠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 명백한 설명이 있는 뒤에 기립이나 무기명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지 지금은 이용섭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 후에 찬반이건 무기명이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議長 趙基燦 안돈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광수의원님.

(○羅光洙議員 의석에서-제가 이용섭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광수의원님 나오십시오.

○羅光洙議員 본의원이 여기에 나오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섭의원님께서 윤리강령과 우리 의원 생활 과정에서 회의 자체를 대충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셨기 때문에 안돈수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먼저 알고 싶다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96년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당시 본인이 당선되지 않았다 해서 동료의원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또 명예 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본의원은

권혁기의원님을 계속 만나면서 접촉을 했습니다. 취하를 해달라, 서로 합의하자, 화해하자, 여러가지 안건을 제가 제안하고 어떠한 것도 우리 권혁기 의원님이 요구한다면 받아줄테니 또 그대로 그렇게 조정을 할테니 취하해달라, 누누히 제가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혁기의원은 그때 당시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은 끝까지 법정에 가서 해결할 문제다. 법정에서 내가 어떠한 해결이 나올때까지는 하지않겠다. 법정에서 어떤 결정이 날때까지는 의회에 나오지않겠다. 또 의정생활 안해도 좋다. 의원직을 사표내겠다. 라고 까지 강력하게 제안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동료의원간에 이런 불화합적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않는 분이 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용섭의원님께서 이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를 해서 권혁기의원님께서 스스로 나오셔서 모든 것을 해명하고 모든 것을 밝혀주고, 이래서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하고 난 다음 나는 윤리위원회에서 빠지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라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權赫驥議員 의석에서-신상발언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상 신상발언은 오늘 안드리겠습니다.

(○權赫驥議員 의석에서-해명하라고 라광수의원이 했잖아요?)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듣든지 제 소관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광수의원님께서 이용섭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상토론하고 찬반토론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는 두개 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느냐, 원안을 부정하느냐 이 문제로 두가지로 갈려있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두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시간 지연시키지말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의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죠?

(○權赫驥議員 의석에서—본인을 지칭했는데, 본인 의사진행 발언도 안주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소명 자료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의장」하는 이 있음)

(○權赫驥議員 의석에서—그런 진행이 어디있어요?)

(○朴景錫議員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이용섭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12분 중에서 두 분이라고 거명을 했는데, 어차피 한 분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의원도 이 명단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급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명이라고 호칭이 됐는데, 스스로 윤리위원회에 제척사항이 된다고 하는 의원이 계시면 자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기의원님. 신상발언 아니죠?

(○金鈴基議員 의석에서—신상발언이 아니면 여기서 제가 입장을 얘기할까요?)

예. 그러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金鈴基議員 제가 좋지 않은 일에 이 자리에 서서 동료의원들을 대하게 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두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은 아마 저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제가 어느 한 묶음에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제 개인 본인의 명예도 있고, 제가 여기에 왜 한 묶음에 들어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 말씀을 신상발언 몇 말씀만 드리 고자 합니다.

○議長 趙基燦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金鈴基議員 신상발언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 신상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의장단 선거에서 우리가 있어서는 아니될 줄 의원간에 서로 화목이 불목으로 번지는 고소, 고발 사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그 당시에 회의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중용하다가 갖은

폭언과 본인의 개인에 대한 신축 건물에 대한 자료조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므로 의원 동료 의원간의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해서 제가 신상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분의 행위 자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서 동료 의원 몇몇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대표자가 아니고 공동명의로 고발했는데, 저희 중암 경찰서에서 가장 가까운 한 동네니까 대표적으로 나와서 진술해달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대표적인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척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 지식을 갖춘 분이고 이성을 고도로 생각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하기에 과연 제가 거기에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제가 자진 사퇴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제척 사유에 제가 해당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어떤 문제가 김영기의원이 제척사유가 된다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네, 김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하는 이 있음)

잠깐만 제세요.

김영기의원님은 본인 자신은 제척사유가 없는데 의회의 화목이나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퇴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제척사유로 의해서 사퇴는 안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의원님, 그렇죠?

(○金鈴驥議員 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찬반토론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회의 진행상 별도움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양 제안이 성립이 됐으니까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언권 주세요」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崔桂洛議員 의석에서—의장, 김영기의

원님도 나가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권혁기의원님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아야죠.)

(○權赫驥議員 의석에서—세 분이 나와서 저를 지칭했는데,)

좋습니다. 단, 한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의원님은 신상발언 해가지고 엉뚱한 다른 문제를 꼬집어 내서 의회상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치도록 한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권의원님에 대해서는 당분간,

(○權赫驥議員 의석에서—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야 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權赫驥議員 의원 여러분, 제가 나오기 전에 세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깊이 경청을 했습니다. 저는 제 심정으로 생각할 때는 세 분이 말씀하신 데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26일날 내용이야 어떻든지간에 생각하는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고, 신상발언 해가지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제 심정도 의원님들 심정이나 또 일부 의원님들 분개에 동참하는 뜻에서 의회에 나오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2월13일날 어느 의원님이 내가 마지막 서명을 했다, 서명한 내용은 국민회의 성북 갑지구당에서 출당조치 서명에 마지막으로 했다 하는 것이 13일날 4시 반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출당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출당을 당해야 되느냐,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4일날 10시에 종암서에다가 제가 의원 한 분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2월14일날. 2월15일날 김영기의원 외 16분, 도합 17분이 또 고발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고발, 고소라고 했는데 고발과 고소는 분명히 법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14일날 출당조치시킨다는 바람에 13일날 오후 4시 반에 알아가지고 14일날 10시에

했고 의원 17분은 15일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을.

지금 종암서에서는 조사가 다 끝나서 검찰에 넘어가 있고, 성북서에서, 저희 관내가 성북서 관내이기 때문에 성북서에서 그것이 고발이 된 줄 알았더니만 종암서에서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3월17일날 종암서에서 고발인 조서를 받고 성북서로 3월17일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성북서에 가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본의원이 고발당한 것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신문기재 사항, 성북신문, 북부신문, 동아일보에 났다고 해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지금 저한테는 검찰에 넘어간 통보가 아직 안왔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에서 제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발인 조서를 지금 검찰에서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찰에서 판결날 때까지는 내가 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못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월17일날 성북서에 고발당해서 서류가 종암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조사 받고 난 이후에 몇몇하게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부터 제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는데요, 본 의원이나 또 본의원을 고발한 상대 의원님들이나 일단은 우리 성북 관내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내가 고발인 조서를 안받았다면 오늘까지도 안나와요. 그런데 제가 받았어요. 검찰에서 판결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본 의원을 가지고 갑을 논의를 한다면 장본인인 저는 무슨 저기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나쁜짓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상황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소라는 것은 본의원이나 타 의원이 금전적인 무슨 피해가 있다고 할적에 고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발해 놓은 것이 결정이 되면 고소

가 되겠죠. 절대 저는 아직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조용히 토론을 해가지고 올리지를 말든가 또 합의조치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에서 올려놓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자면 시민복지, 지역개발의원님들 저 때문에 또 김영기의원 때문에 40분 되시는 분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척 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판결나기 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또 본회의까지 이렇게 상정해 놓고 이것을 논의하신다면 저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사퇴를 못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합의조치 됐으면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내가 잘못든 잘못했든 예우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달갑게 받겠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아무 토론 없이 끝난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네,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법률용어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龍燮議員 의석에서—거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거명하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용섭의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보하십시오.

더 이상 논란하면 진행상 어렵고 또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찬반토론이라든가 신상발언은 이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용섭의원님 진정해 주십시오.

자,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하자는 분과 문제제기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안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한 두 안이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 재청까지 해서. 이 문제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안돈수의원님.

○安敦洙議員 정릉2동 안돈수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찬반을 해가지고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확한 또 참작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져가지고 찬반토론을 해야 되고 오늘 이 안전을 꼭 처리를 안한다면 다음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서로간에 대화를 한 후에 마찰이 없는, 또 사퇴할 분은 사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뒤편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전을 지금 당장 처리를 안해가지고 우리 성북구민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단가 우리 의원이나 행정부에서 어떤 모순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전 만큼은 다음 회기로 미루든가 또 오늘 처리를 하려면 충분한 휴회시간을 가지고 타협을 한 후에 찬반토론, 찬반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안돈수의원님,

(○金鈴驥議員 의석에서—의장님, 조금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金鈴驥議員 의석에서—한말씀만 드리겠어요.)

가만히 계십시오.

(○金鈴驥議員 의석에서—두명이라고 했는데 자진해서 내가 아니냐 해서 계속 왔는데 제가 제척 사유에 들은 두명중에 들어있는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안돈수의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건설적이고 좀 숙고할 문제입니다만은 이미 표결로 해서 제청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安敦洙議員 의석에서—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방금 안돈수의원님 말씀하신 이번 회기를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자

는 수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안돈수의원의 재청하실 의원님, 제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金壽榮議員 의석에서—안돈수의원님의 그 안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제가 아는 회의 규칙에는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죠.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재청일 겁니다. 그러면 동의, 재청이 나왔으면은 그 안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 적에 표결로 어떤식으로 하든 표결 하고 가야죠. 동의합니다가 가운데서 했다고 이것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金壽榮議員 의석에서—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다른 여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으로 성립이 되었으면은 제일 마지막 순서부터 회의 진행상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영의원님,

(○金鈴驥議員 의석에서—제척 밝혀 주세요. 본인 신상문제가 있습니다. 두명 중에 제척이 있는지, 제가 제척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김영기의원님, 5분간 발언권 주겠습니다. 간단히 나오십시오. 나오시라고요. 제척 사유를 여기서 어떻게 밝힙니까? 다른 사람이, 의원 신분에 관한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제척 사유를 호명을 해서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金鈴驥議員 의석에서—한분은 밝혀졌습니다. 한분이 내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사진행을 도와 주십시오. 방금 안돈수의원의 동의에 이 문제를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안돈수의원의 안에 동의한 의원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羅光洙議員 의석에서—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안돈수의원이 안이 두가지 아닙니까? 오늘 표결하느냐, 유보를 시키느냐,

나, 이 안전을 가지고 유보시키자는 사람을 기립한다든지.)

그것입니다. 바로 유보시키자 부결이 아니고 유보시키자는 안이 안돈수의원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안돈수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의원확인)

재석의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돈수의원님의 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유보가 아니라 오늘 치르자라는 안에

(거수표결)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 중에서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그러니까 안돈수의원님의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아홉명입니다. 그리고 찬성의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기권이 일곱이고요. 따라서 본 안전은 다음 회기로 이관할 것을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내일 11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4分 散會)

○出席議員 41人

丘 在 永	尹 弘 老	李 龍 燮
金 珉 奭	趙 基 燦	羅 光 洙
柳 成 烈	崔 東 煥	金 榮 植
朴 時 俊	李 大 一	安 敦 洙
金 光 植	權 赫 驥	尹 晚 丸
崔 哲 模	洪 性 濤	朴 景 錫
任 泰 根	金 南 孝	鄭 昌 萬
安 傑 珞	金 壽 榮	崔 桂 洛
李 承 魯	李 鍊 垌	金 振 權
金 鈴 基	俞 鎮 武	高 允 根
徐 榮 振	徐 化 錫	金 甲 濟
吳 榮 作	柳 興 先	宋 夏 星
金 順 權	申 宗 鉉	文 京 周
金 東 殷	許 東 翼	

○缺席議員 1人

辛 在 福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專	門	委	員	金	鎮	永
專	門	委	員	林	洛	吉